

내일 어버이날... 자식들이 말하는 '나의 어머니'

# “시력 잃은 내게 빛이 되어 준 어머니... 끝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는 자신보다 항상 자식이 먼저다. 먼저 먹고 먼저 입힌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다른 아이들보다 맛있는 것 못해줘서, 함께 놀아주지 못해서, 사달라는 것 항상 못 사줬다고 미안하다고만 한다.

‘엄마’를 떠올릴 때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가 하면, 눈물이 어느새 차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내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이겨냈을까,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은 어머니가 지금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더 고맙고 미안하다. 축스럽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사랑의 인사를 보냈다.

◇좌절할 날 일으켜 세워준 엄마, 고마워요=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고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전세빈(여·52)씨에게 엄마 김순자(75)씨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마운 존재다.

엄마 김순자씨의 부단한 뒷바라지 속에 성공한 발레리나의 삶을 살다 은퇴 후 발레학원을 차리게 된 전씨는 지난 2010년 녹내장 판정을 받은 뒤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력,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전씨는 시력을 잃은 슬픔에 며칠을 울고 울었다. 하지만 그런 세빈씨 옆에서 어머니는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딸이 좌절할까 단 한번도 딸 옆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딸의 손과 발이 돼 발레학원 운영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어머니는 이제 딸의 눈이 돼 주었다.

세빈씨는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학원을 방문할 때면 ‘00엄마 오셨네’, ‘00이가 왔네’라고 귀엽게 해주셨어요. 딸의 시력이 나빠진 것을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도록이요. 어머니는 원생들 옷 갈아입히기, 청소, 식사 등 어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은 딸 대신 학원 대소사를 모두 책임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세빈씨 말고도 엄마 김순자씨는 두 여동생을 체계적인 무용수로 키워냈다. 세빈씨의 두 여동생은 스웨덴 왕립 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무용수다.

시력을 잃은 세빈씨 곁에는 언제나 엄마 김순자씨가 있었다. 2년 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도 처음으로 엄마와 따로 살게된 세빈씨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안된다.

세빈씨는 “제게 있어 어머니는 은혜라는 말이 가법

시각장애인 전세빈씨  
발레학원 하다 시력 잃으며 좌절  
어머니 격려·용기로 제2의 인생

‘장한 어머니상’ 정춘자씨 아들 강동주씨  
아버님 돌아가신 후 온갖 일 다해  
억척 삶 살며 홀로 4남매 키워

서울대 간 국악 인재 이지원씨  
미용실 하며 매니저까지 1인 2역  
팔도 돌면서 각종 대회 뒷바라지

게 느낄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예요. 사실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딸이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필요하지만, 가정도 생겼으니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어머니가 벌써 75세가 되셨는데, 못한 딸은 항상 어머니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예요”라고 말했다.

◇뒷바라지해준 엄마, 사랑해요=강동주(59)씨 어머니인 정춘자(79)씨는 지난 2019년 광주시로부터 장한어머님상을 받았다. 하지만 동주씨에게는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보다는 자식들을 위해 1년 365일 쉬지않았던 억척스러운 어머니이다.

강씨의 집은 1980년대 그리 부유하진 않아도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해왔다. 하지만 1986년 카세트 공장을 크게 운영하시던 아버지



전세빈씨의 어머니 김순자씨.



이지원씨와 어머니 박소연씨(우측).



강동주씨의 어머니인 정춘자씨.

가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강씨는 기억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져 가산의 대부분이 빚으로 날아가 버렸고, 이후 1989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결국 정춘자씨는 생계전선에 뛰어 들 수밖에 없었고 농산물 중계상을 시작으로 컴퓨터 학원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뒤를 재지않고 돈을 벌었다. 동주씨를 포함한 1남 3녀를 먹고 입히려면 어쩔 수 없었다.

정씨는 여성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1남 3녀를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뒷바라지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자식들은 입을 모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도 내색을 안하시고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하는 강씨의 학비도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줬다는게 강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내가 직접 사회에 나와 생활을 해보니 1980~90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시절 홀로 4명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힘든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온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 돌며 격려해준 엄마, 최고예요= 전남 ‘의뎡인재’인 이지원(여·20)씨는 올해 서울대학교 국

악특기자로 입학했다. 이씨는 자신을 위해 본인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는 어머니 박소연(47)씨를 생각하면 항상 애뜻한 마음이 앞선다.

진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소연씨는 국악을 하고 싶어하는 지원씨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국악을 지원씨가 대화를 나가기 위해 대구·진주 등 전국을 누빌 때 항상 운전대를 잡은 것은 어머니였다. 혹시나 지원씨의 컨디션이 안좋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차를 몰았다고 한다.

또 예선부터 본선까지 타 지역에서 보내려면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엄마 박소연씨가 모두 해결했다. 또 지원씨의 대회 의상과 헤어 스타일링도 전담했다.

지원씨는 “오늘(6일)이 어머니의 생일인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국악원 단원이 되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잘하고 있으니 내 걱정보다는 어머니의 삶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마, 내 눈이 저 세상이예요=“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제 눈이 돼주어 감사해요.”

세광학교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김재현(17)군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엄마 라양선(48)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생긴 시각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좌절할까,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위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돈도 많이 쓰셨죠”

엄마 라양선씨는 재현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좋지않은 생각을 하며 괴로워할까 싶어 쉬는 날이면 함께 여행을 다녔다. 지금도 재현군이 기숙사에서 나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여수를 찾을때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재현군은 “제 원래 꿈이 수의사 였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워보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고마운 건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것이든 다 해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꿈 특수교사인데 훌륭한 선생님이 돼, 저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만취운전 10대, 가로수 들이받아 2명 숨져

새벽시간대 술에 만취한 10대 운전자가 돌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졌다.

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0분께 목포시 용호중 한 도로에서 A(19)씨가 돌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B(19)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C(19)씨가 숨지고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

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목포지역 배달대행업 종사자들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했으며 사고가 난 차량은 A씨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두환 10일 광주 항소심 첫 재판 안온다

### 전씨측 불출석 상태 진행 요청

전두환(90)씨가 오는 10일 예정된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에는 변호인만 출

석,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전씨 측은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라고 설명돼 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개정하고 재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365조)에 따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